

安東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崑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 東大門區微慶1洞 112-49
安東金氏大宗會
電話: 2 4 4-3 7 1 7
對替口座: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 3 0-0 9 1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를 年間 5,000원 以上을 納付하신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하오니 會費未納하신 宗親께서는 꼭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祭奉行



床石서부터 築臺까지 一三.五미터 제철의 끝 넓이 九미터. 제철끝측대높이 四미터) 하였으며, 山所 옆에 누워 있던 옛 碑石을 다시 세운 후 望柱石은 擴張한 제철끝자리로 移轉하였고 階段은 돌로 쌓은바 兩側은 세멘트콘크리트 境界石으로 넓이 一.二五미터에 約 八十미터 길이의 階段築造까지 工期 三十三日만인 六月二十七日 竣工을 하고 때마침 찾아온 英植理事와 安東有司 들도 같이 할아버님 靈前에 精誠것 告由祭를 올렸으며 冥福을 빌었습니다. 이 工事は 郡事公派 世舖宗親에게 金二千七百五十萬원에 都給을 주어 그 地方業者인 孫泰元氏가 施工을 한 것이고 安東有司 光得宗親이 監督을 하게 하였는바 우리 大宗會 事業中 忠烈公 할아버님의 萬年幽宅을 鞏固히 하는 未曾有의 爲先事業이기 때 문에 저는 이 工事期間中 四次에 巨하여 安東郡 祿轉面 陵洞現地에 直接 내 려가 工事指揮를 하면서 位置上 難工事를 한 것으로 靑史에 빛나는 忠烈公 할아버님의 山所로서 未洽 하나마 어느 程度는 面貌를 갖추었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長權純甲氏가 이번 우리 工事에도 많은 協助가 있었는 것을 附言하면서 今年부터는 宗親들의 時享參祀를 積極勸奨하고 便宜를 提供하기 爲하여 陰十月九日 九時부터 忠烈公 할아버님의 時享을 올리고 飲福后 待機시킨 버스에 合乘을 하여 檜谷洞으로 가서 할머님(竹州朴氏) 時享을 올린다음 點心食事を 마치고 그 버스로 安東市로 나와 解散할 計劃이오며(버 스料金은 大宗會負擔) 이 때 우리 後孫들은 優雅하게 設置한 石造階段을 밟아 올라가 넓혀진 할아버님 萬年幽宅에서 謹嚴한 姿勢로 時享을 올리고 冥福을 빌도록 저는 그곳에서 各處에서 오시는 祭官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一九九〇年 九月二十三日 우리 中始祖이신 忠烈公 할아버님의 墳墓基地를 數百年만에 確保하고 林野二百六十 九坪을 大宗會所有로 移轉登記를 經了한 後 서둘러 推進한 後續事業이 바로 今年 六月二十七日 竣工한 墓城擴張과 進入路 階段築造工事로서 우리 安東金氏 忠烈公 後孫들은 子子孫孫 繼承하여 할아버님의 威德을 顯揚하고 山所의 守護 保存과 時享參祀에 盡力할 것을 저는 此際에 國內外 宗親 여러분에게 再三強調 하면서 竣工의 喜消息과 時享參祀에 對한 計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面貌一新된 忠烈公山所와 進入路 石造階段”



墓城을 擴張한 築臺와 進入路 石造階段의 全景



竣工후 告由祭를 올리고 山所앞에서 紀念撮影한 모습(中央이 會長님)右側은 누워있던 碑石을 다시 세웠습

今年度 大宗會總會에서 決議한 忠烈公 할아버님 山所의 墓城擴張과 進入路 石造階段築造工事を 完遂하기 爲하여 大宗會報 第三十七號 一面에 會長任이 發表하신 바 있어 知悉하 실 것이나 이 工事때문에 泰亨會長任이 四次에 걸쳐 安東現場에 내려가셔서 直接 陣頭指揮를 하신結果 그 難工事を 위 寫眞과 같이 竣工하고 지난 六月 二十七日 隣近宗親들과 告由祭를 올렸으니 우리 安東金氏 數百年間의 宿願이 었던 爲先事業이 成就된 것을 宗親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는 바이며 이에 對한 會長任의 書翰을 여기 에 掲載합니다.

謹啓時下季秋之節에 尊體萬安하시며 인제나 高堂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祈願하나이다. 這般 昌慶宮에서 開催한 大宗會 定期總會때 今年度 事業計劃으로 安東郡 祿轉面 陵洞 後麓에 모셔져있 는 忠烈公 할아버님의 狹小한 墓城을 擴張할 것과 山所에 올라가는 進入路의 階段築造工事を 지난 五月 二十六日 起工하여 제철面 積을 約 두 배로 擴張(길이

將次 이 工事結果가 아 무런 瑕疵없이 施工한 現 狀態대로 永久히 保存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옵 고 이때 食水難으로 困難을 겪는 管理舍에 우물을 파고 水道裝置를 하여주었 으며 今春 陵洞入口에 政 府豫算으로 훌륭한 橋樑을 架設하였고 그 地域의 不 便한 道路를 擴張키로 計 劃을 세운 現地 祿轉面

西紀 一九九二年 十月 日
安東金氏大宗會長 泰亨 白
國內外 安東金氏 各宗親 貴下

先祖時享日程表 一九九二年度

奉享位	月日	曜日	墓(壇)所在地
忠烈公諱方慶之墓 冷平國大夫夫人竹州朴氏之墓	十一月三日 (陰十月九日)	火	慶北：安東郡 祿轉面 陵洞 " 豐山邑 檜谷洞
文英公諱恂之墓	十一月一日 (陰十月七日)	日	京畿：安養市 冠陽洞 後山
文肅公諱永暉之墓	十月二十六日 (陰十月一日)	月	忠南：天安郡 並川面 佳田里
福昌府院君諱永熙之墓	十月三十日 (陰十月五日)	金	忠北：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領三司事公諱藏之墓	十月三十日 (陰十月五日)	金	"
密直司使公諱七祐之墓	十月四日 (陰九月九日)	日	京畿：抱川郡 一東面 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之墓	十月十八日 (陰九月二十三日)	日	京畿：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典書公諱成牧之墓	十月二十八日 (陰十月初十日)	水	忠南：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大司成公諱九容之墓	十月二十六日 (陰十月一日)	月	京畿：抱川郡 蒼水面 可養里
都評議公諱九鼎之墓	十月二十九日 (陰十月四日)	木	慶北：義城郡 義城面 嶺洞
提學公諱益遠之墓	十月二十六日 (陰十月一日)	月	忠南：天安郡 並川面 佳田里
按廉使公諱士廉之墓	十月三十日 (陰十月五日)	金	忠北：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翼元公諱士衡之墓	十一月三日 (陰十月九日)	火	京畿：楊平郡 揚西面 木旺里
書雲觀正公諱緜之墓	十月二十六日 (陰十月一日)	月	京畿：儀旺市 浦一洞

(지난호에서 계속)
이 두 번째는 홍다구(洪茶勾)가 관군(官軍)의 처자(妻子)인 여명(女命)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대변(對辯)이라기보다 홍다구(洪茶勾)가 충렬왕(忠烈王)에 대한 요구가 공식성상에서 이루어 졌다는 형식을 취했다. 충렬왕(忠烈王)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의 이유로서 관군(官軍)의 처자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협해서 빼앗아서 처(妻)를 취(娶)한 것으로서 처첩(妻妾)의 많은 사람들은 남편(公)은 남편(公)인 줄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홍다구(洪茶勾)와 충렬왕(忠烈왕)은 열(烈)을 내어 응수(應酬)하다가 잠시 후에 세조(世祖) 후비(后妃)라는 모고군인들의 자식이 있는 자는 남편한테 돌려보내고 자녀가 없는 자들은 고래에 머물게 하라" 하고 말하였다. 한(鶴)의 일성(一聲)이었다. 충렬왕(忠烈王)은 머리를 숙이며, 그에 따를 것이라고 뜻을 표한 즉 홍다구(洪茶勾)도 또 머리를 숙였다. 그리 고 세조(世祖)는 충렬왕(忠烈王)에, "고려(高麗)에는 고려 로서의 법률(法律)이 있을 것이다. 저기에 따라 하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벼슬이 높 다면 홍다구(洪茶勾)는 김방경(金方慶)의 무고사건(誣告事件)을 위시하여 담선법회(談禪法會)의 일에 대해 서도 또 이번의 이분 회(李扮禮)사건에 있 는 자들을 벌(罰)에 처 할 때는 미리 보고하고 후에 행하라" 그와 같이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충렬왕(忠烈王)은 연도(燕都)를 출발해서 귀국(歸國)의 길에 올랐 다. 홍다구(洪茶勾)가 이 분회(李扮禮)문제에 관해서 다시 고려(高麗)에 대해서 화난(禍難)을 주려고 한 사건 은 이것으로서 일단락 된 셈이다. 충렬왕(忠烈王) 세조(世祖) 후비(后妃)의 온정(溫情)이 여 전히 자기와 고려에 다 뜻하게 내려주는 감동(感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 불만도 없었는데, 다만 이번의 임조(入朝)에 서 다소(多少) 이해하 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세조(世祖) 후비(后妃)의 홍다구(洪茶勾)에 대한 태도였다. 생각해보 면서도, 도무지 일을 떠들석하게 하여 고려 일국(高麗一國)을 소 요스럽게 한 죄(罪)는 논(論)하지 않을 수 없 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조(世祖)는 거기에 관 해서선 전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 다. 만일 홍다구(洪茶勾)의 이 의의(義義)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의 언동(言動)은 꾸 지 않음, 반동성(反動性) 질(質)이 없는 것이나, 홍 다구(洪茶勾)의 경우 는 세조(世祖)로부터 한 마디의 질책(叱責) 을 받은 일이 없었다. 특히 이번이 두 번째 의 대변(對辯)의 경우 등 은 이미 문제는 전 부 전변의 것으로서 해결 되었다고 대변(對辯)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벌의 잣다(計)는 전혀 홍 다구(洪茶勾)의 이대 로서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분이 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二월十日, 왕(王)은 歸國(歸國)했다. 김방경(金方慶)을 위 시하여 재신(宰臣)들 은 서로 일이 크게 벌 어지지 않고 조용히 끝났음을 기쁘게 생각 했다. 왕(王)은 귀국 (歸國)해서 공주(公主)가 임조(入朝) 중 매일 저녁과 같이 내부 (內府)의 악기(樂器) 를 내놓고 영관(伶官) 을 명(命)하여 풍악(風 樂)을 연주(演奏)해 보 냈 다. 말을 들었다. 궁 중(宮中)에는 층채(層 榭)가 만들어져서, 천 등(千燈)을 켜 놓고, 영 인(伶人)·음악을 지휘 하는 사람(指揮)의 지휘하 는 풍악(風樂)의 세백(色 百)까지 들려왔다고 한 다. 또 산 호랑이를 들 에 내놓고, 공주(公主) 는 원정(園庭)에 올라 가서 그것을 구경했다 는 말도 들었다. 몽고 의 객인(蒙古의客人) 충렬왕(忠烈王)은 공주(公主)의 객인이 되고, 항상 불렀다. 두 어린아 그의 어머니가 되었으 나 그의 성격(性格)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 는데, 그래도 고려(高麗)의 왕궁(王宮)의 생활에 조금씩 훈련되어 가는 것 같이 충렬왕 (忠烈王)의 눈에 보였 다. 공주(公主)의 집령 구(法恰口)·從者(從者)의 비서(秘書)들은 끊임 없이 원나라와 고려를 왕래하고 있었다. 집령 구(法恰口)들의 행동 (行動)은 처음 왕(王) 이나 재신(宰臣)들이 고려의 사정이 원나라 에 새어나가는 것을 걱 정스럽게 생각하였는 데, 지금은 다소 달라 졌다. 집령구(法恰口) 들에 의해서, 원(元)나 라의 사건과, 중서성 (中書省)의 동정(動 靜)같은 것이 이쪽에 전해져서, 차라리, 그것 은 고려의 군신(君臣) 들에게 바람직한 일이 되었다. 공주(公主) 구 쓰루가 이미 시가 몽고 의 객인(客人)에서 고 령왕(高麗王)의 비(妃)로 변해 가는 것같이 집령구(法 恰口)들도 원나라 과 건의 내정자(內偵者) 라는 성격(性格)으로 부터 차차로 고려(高麗)가 원나라에 파견 하는 내정자(內偵者) 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三월 초에 원나라에 서 돌아온 집령구(法 恰口)의 한 사람에 의 하여, 중대한 보도가 나왔다. 그것은 二월六 일(宋)의 패잔병 (敗殘兵)이 최산도(崔 山島)에 평정되어 여 기에서 오로지 원나라 에 대적하였던 송병 (宋兵)은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마치 기차라고 있었던 것 같이, 그 이른날 二 월七日에, 세조(世祖) 후비(后妃)로부터 일본 (日本)정벌에 대한 조 선명령(造船命令)이 양주(楊州) 호남(湖 南)·감주(甘州)·남주 (南州)·지금의(江西)·천주(泉州)·사주 (四州)에 내려져, 명령 (命令)을 받은 주함 (舟艦)의 수는 九백척 이라는 것이다. 잠시 고 려의 군신(君臣)들 사 이에서 잊어버리고 있 었던 일본정벌(日本征 伐)의 일이 갑자기 하 늘에서 떨어졌듯이 그 들 앞에 나타난 것이 다. 고려(高麗)에서는 곧 재추(宰樞)회의가 열렸다. 조선명령(造船 命令)이 고려에 내리 지 않고, 원(元)나라 국내의 사주(四州)에 내려진 일이 일좌(一 座)의 누구도 흥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데, 전역(前役)의 괴로 운 경험(經驗)이 있어 서 다같이 무섭고 귀찮은 것을 중간에 놓 고, 그것을 사방에서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었다. 이번의 일도 누 구도 알지 못한 일 본재정(日本再征)의 일이 확실히 행해질 것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로서의 문제는 그 일본재정(日本再 征)이 어떠한 영향을 이 나라에 미칠 것이라 는 것이다. 여기에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 적인 견해가 있다. 그 러나 최근 一·二년의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 계로서 생각해서 당연 한 일로서 낙관적(樂 觀的)으로 보는 자가 많았다. 만일 고려(高麗)에도 조선명령(造 船命令)이 내려진 다 면 당연히 원국내(元 國內)의 사주(四州)의 경우와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 없 었다. (다음호에 계속)



白凡 金九先生 追慕祭

日 時: 1992年 6月 26日 午前 10時
 場 所: 孝昌苑, 白凡, 金九先生 墓所
 式 順: 奏樂과 開式辭, 國民儀禮, 白凡 先生에 對한 默念 張忠植會 長의 式辭, 光復會長, 李康勳氏의 追慕辭, 三黨代表의 追慕辭에 이어 各界來賓의 花焚香이 있었다. 그中에서도 가장 心琴을 울리는 李康勳光復會長의 追慕辭는 온 國民의 絶叫인 듯하여 다음과 같이 紹介합니다.



追 慕 辭

檀紀4325년6월 26일, 不肖小生은 光復會를, 代表하여 追慕의 情을, 表하러 하거나 天國에 계신, 白凡先生任의 最後의 모습을 聯想만 해도, 五臟이 찢어지는 感激에 복받쳐 表現할바를 모르겠습니다.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先生任!!

님께서 銃彈에 맞아 劈선血을 흘리시고, 이世上을 떠나실때 태어난 강보의 어린이는 벌써 不惑의 壯年이 되었고 當時의 壯年이었던 저같은, 人生은, 부질없는 목숨만 살아남아서 人生의 黃昏길인 九十고개를 넘으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나 뜻만가지고 先生님에게 慰靈이 될만한 아무 한일이 없는 人生이외의 람되게 또 선생님, 尊影앞에 서서 하소연 안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수없는 그날의 悲劇!!

해마다 이날이 오면 下手者의 口로 그를 操縱한 背後의 人物들을, 白白받아 뜻있는 滿天下 同胞들과 함께, 先生님을 爲한 慰靈祭라도 지냈으면 하는것이 살아남은 저희들의 대수롭지못한 所望의 하나였아오나, 下手者가, 이점에 對해서, 입을 꼭다물어 왔으므로, 저희들의 그 가날픈, 所望조차, 實現해보지못하고, 荏年輪만 겹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問題는 先生님을 崇慕하고 同情하는 수많은 血族들, 가슴깊이 맺혀진 뼈에 사무친 응어리와 切齒厄怨의 怨恨을 푸는 關鍵이 되는것입니다.

率直히 말씀해 하늘아래 이러한 나라가 또, 어디있습니까?

나라가 亡해지려 할때에는 苦冠의 靑年으로 義兵抗爭과, 치하포, 議學를 躬行實踐하여 倭敵의 손에서, 生命이 頃刻에, 臨迫하였을 瞬間, 高宗의 非常한 措施로 貴重한 玉體가 危機를 免하게 되었고 庚戌國恥以後 十年만에는, 舉族의 一으로 일으켜진 三一獨立精神, 二千萬 民族總意에 依하여, 樹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27年間이나 死守 하시다가 8.15광복을 맞이하여 歸國하시게 되었으나 남들의 干涉으로 名譽스럽지 못하게도 個人資格으로 歸國하셨는데도, 國民들은 光復의 元勳 이시며 겨레의 象徵의 存在로 恒常 님이 계시오매, 萬人의 精神的 慰安이 되고 마음 든든하오더니만, 무슨 業冤으로 그所重한 生命이 極惡無道한 무리들, 兇謀의 害를 받으시다니!!

嗚呼哀哉라, 咀주스럽도다!!

當時에 權座에 앉은 무리들이여!!

忠武公以後의 偉業을 세우신 몇분 안되는 거룩한 先烈의 한분이신 어른을 弑害한 安斗熙의 背後人物을 들추어 내고 送宮에 쌓였던 世紀的 陰謀를 밝혀내서 世人의 疑惑을 풀며 稀釋되었던 民族正氣를 昂揚시켜서 半萬年 歷史民族의 固有한 道義心을 다시 奮發시켜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完遂하는 捷徑도 먼저 四十餘年 동안 배일에 가리워졌던 계례의 至高至尊한 白凡先生 弑害眞相을 糾明하므로써 새出發해야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왔습니다. 이제서야 下手者의 口로 背後가 있었다고 確言하였습니다. 오늘을 新紀元으로 저희들은 이事業을 完遂하여 祖國의 興業을 爲하여 이바지하겠습니다.

白凡 先生님!! 굵어 살피사 저희들을 陰助절하소서 저희들은 이世紀的 陰謀를 어디까지나 平和의 方法으로 밝히되 論理와 寬容으로써 實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先生님 모든 血族들에게 靈感을 주소서. 兇漢의 背後關係가 明明 白白하게 糾明된 뒤 先生님을 爲한 慰靈祭를 지낼 때 다시 泣訴하겠습니다.

님의 冥福을 빌면서 43周忌日에

光復會 會長 李 康 勳

◎ 動 靜 ◎

◎ 지난8월10일 扶餘宗親會 總務 先會氏의 案內로 男女35명이 貸切車로 安東 忠烈公先祖任의 省墓를 하고 擴張工事後 雜草가 많아서 雜草除去를 했고 檜谷洞 할머님 山所도 省墓를 하고 왔으나 두곳에 案內表示板을 設置하여주시기를 要望했다.

◎ 지난8월 18일 安東宗親會에서는 大宗會有司이며 宗事に 積極協力하시는 光得氏外 40餘名이 祭需를 만들어가지고 忠烈公先祖任의 山所에가서 (自動車를 貸切)하여 祭禮도 올리고 省墓를 하였다.

◎ 宗 中 行 事 ◎

安東金氏 嶺東地域 宗親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였으며 會長 泰賢氏의 熱意로 基金造成에도 邁進하고있어서 感銘깊다한다.

日 時: 1992年 8月 9日 午前 11時

場 所: 三陟市 汀下洞 海邊

贊 助 金 名 單

1992年 9月 15日 現在

翼元公派	洪 默	大邱市西區 飛山洞	50,000
提學公派	周 東	忠 北 陰 城 邑	5,0000
翼元公派	興 會	서울 城東區 中谷洞	30,000
按廉使公派	在 均	서울 汝矣島 (香田花園)	30,000
大司成公派	在 根	慶北 永川郡 臨泉面	20,000
安靖公派	炳 善	京畿 城南市 丹垆洞	20,000
按廉使公派	哲 鉉	忠南 天安市 九成洞	20,000
大호軍公派	형 술	全南 咸平郡 海寶面	20,000

獎 學 基 金 名 單

按廉使公派	元 卿	中央大學教教授	5,000,000
-------	-----	---------	-----------

今年度 總會의 承認을 얻어 처음으로 實施 하는 獎學委員會를 召集하여 獎學金支給을 爲한 諸般施行細則과 討論事項을 審議를 通過하기 爲하여 眞摯한 討論을 한結果 今年度에는 試驗의 實施해보고 施行錯誤를 補完하면서 漸進的으로 改善해 나가는 方向으로하고 今年度에는 支給金의 限度額을 參百萬원 으로 하여 一人當 貳拾萬원式 可及的 高等學校 三學年 재학생인 學生으로 學業成績이 優秀한 極貧者를 各派一名式을 推薦하여 會長團이 審査決定 한후 장학금을 지급키로 滿場一致 可決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名 稱: 安東金氏大宗會 獎學會
 日 時: 一九九二年 七月 三十日
 場 所: 安東金氏會館 會議室
 參席者: 十四名

大宗會獎學會 會議實況

獎學基金을特別贊助하신

篤志宗親

金元卿博士의美談

按廉使公二十代孫인
元卿宗親은中央大學校 經營大學의學長이시며 經營學博士요 公
認會計士로서 大宗會의獎學事業을贊同함은 勿論 基金의目標額達
成에 隘路狀況을 알고 이를 快諾하고 巨金 五百萬圓을 喜捨하
여 獎學基金의 目標額五千萬圓을 達成하도록한 功을 높이讚
揚하는바이오며,感謝의뜻과 더불어 事實을 全宗親에게 알리려드
림과 同時에 다음과같이 中央大學校에서도 私財를 投擲하여 自
己의雅號를따서 秀山獎學會를 設立하고 後學을 養成하는 德
과積善을하는 宗親임을 紹介합니다.

編輯室

派名改正公告

從來에 呼稱하여오던 派名을 派宗親會의 決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으므로 公告합니다.

다 음

1. 改正前派名... 大司成公派
2. 改正된派名... 文溫公派
3. 改正한理由... 中始祖 이신 忠烈公, 諱方慶의 玄孫이
신 諱九容, 號, 惕若齋의 官職을 불려서 大司成公派라
불렀으나, 시號인 文溫公派로 改正決議하였으므로 公
表함

西紀 一九九二年 九月 日

安東金氏 文溫公派(舊大司成公)派 宗親會
會長 金光日 白

會報가 創刊된지 十個年이 되는동안 愛讀하여주시는 宗親諸位의
聲援과 激勵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會報刊行에 있어서 現在와같이 非協調的인 無關心으로 通常會
費납부를하지않는狀態라면 大宗會의 負債가 加重되어 會報의刊
行과 運營을 持續할수없는 處地에 있사오니 大宗會의 財産이
宗親여러분의 財産이라는 矜持를 가지시고 이번 會報에 對替口
座用紙를 보내오니 가까운 郵遞局에 가서서 金額과 住所派와
姓名을 記入하여 提出하시면 됩니다.
大宗會를 아끼고 育成한다는 責任과義務를 遂行 한다는 自
矜心으로 崇祖睦族한다는 意志로 通常會費를 納付하여주시면
十匙一飯으로 大宗會發展에 큰貢獻이 될것입니다.

老교수 후학사랑 장학회로 활짝



中大 金元卿교수「秀山」설립

노교수가 사재를 털어 후 학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화상을 받은 노 교수가 37명의 모은 후학의 기금으로 1천만圓을 쓰기 위하여 가장 많은 모금교수 40명에게 1천만圓씩을 나눠 주기로 했으며, 1천만圓을 모은 후학의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回甲축의금에 私財보태 5천만圓 기금화

선정기준 품성중시... 경영대생 10명 첫수혜

노교수(61)는 지난 25일 자 신의 아들들 판「秀山」장학회를 설립하고, 10명에게 첫차학을 수여했다. 이 때를 전후하여 노교수는 5천만圓의 장학금을 모은 후, 11년 전부터는 장학금의 10%를 장학회로 기부해 왔으며, 노교수는 61년 전부터 장학금을 6천만圓으로 수백명의 경영대생들에 지급해 오고 있다. 노교수의 장학사업과 제 자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장학회 사무실에서 노교수를 소개하는 중앙대 경영대생들이 노교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會報、愛讀、案內文

各種生花
꽃바구니
화 분

● 迅速한 配達 ●
● 低廉한 價格 ●

宗親을 爲한 特別奉仕

香 田 園 藝

(香 전 원 예)
代表 金 在 均

住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중앙빌딩 106

電話 : 783-3166~7,



【南大熙 기자】